

배포일시	2020. 6. 23.(화) 11:00 (총 3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	담당자	과장 신언성 전문관 김순
		전화번호	043-272-0365

24일부터 충청북도 장마철 들어

- 24일 밤~25일 새벽 많은 비
 - 예상강수량 : 충청북도 (30~80mm)
- 6월 28일 ~ 7월 1일 다시 장맛비



[6월 24일 밤] 우리나라 주변 예상 구름과 기압계 모식도

[강수 전망]

- (원인과 전망) 24일(수)~25일(목) 오전은 서해상에서부터 접근하는 저기압과 함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.
- 24일 새벽 제주도와 서해안, 아침에 서울·경기도에 비가 시작되겠고, 비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24일 아침(09시)에 충북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하여 낮(12시)에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- 이후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정체전선이 다시 제주도남쪽 먼해상으로 남하하면서 25일 오후(18시)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
- 한편, 26일 새벽~오전에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은 구름대가 발달하여 약한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.

- (강수량·강우강도) 특히, 24일 밤부터~25일 새벽까지 시간당 10mm 내외의 강수가 내리겠고, 돌풍과 함께 천둥·번개가 치는 곳도 있습니다.

- 예상강수량(24 아침(09시)~25일 오후(18시))
 - 충청북도: 30~80mm

- (변동성) 저기압의 이동속도가 느려질 경우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강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니, 최신의 기상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향후 장마 전망

- 26일 경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체전선은 제주도남쪽 해상에 머물겠습니다.
- 이후 28일(일) 경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정체전선이 함께 북상하여 7월 1일(수)까지 충청북도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
 - 저기압 이동경로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추후 발표되는 최신의 중기예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
[기온 전망]

- 오늘(23일)은 남동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햇볕에 의해 가열되면서 낮까지도 기온이 30~34℃의 분포로 무더위가 지속 되겠습니다.
- 내일(24일)~모레(25일)은 비구름에 의해 햇볕이 차단되면서 낮 기온이 26~29℃의 내외의 분포를 보이면서 폭염특보는 해제 되겠으나,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습한 공기로 인해 체감온도는 1~2℃ 가량 더 높겠습니다.
- 이후 26~27일(토)은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한낮 기온이 30℃내외로 덥겠으니, 건강관리에 유의 하기 바랍니다.